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開會式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1999年 11月 25日(木) 11時 00分 開式

第97回鐘路區議會(定期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대한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 대한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11時00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第97回 鐘路區議會 定期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洪承台 존경하옵는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또한 20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구정전반에 대해 운영을 살펴보는 뜻깊은 제97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하게 될 이번 정기회는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의정활동 계획을 준비하는 회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설레임과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지도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고 금세기를 역사속으로 보내야만 하는 날도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뜻깊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2년 전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개혁 추진과 우리 모든

국민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던 결과 이제는 그때의 외환위기를 완전 극복할 수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때 바닥이었던 외환보유고는 여유있게 확보가 되었고, 국제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성장률, 생산과 소비, 투자와 저축, 물가와 금리, 환율 등이 모두 IMF관리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근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적자금의 투자 등 경제기반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다시는 IMF와 같은 제2의 환난과 그때의 긴박했던 국가위기를 우리 모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로 법령이 정한 의결사항들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책형성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확정권도 의회가 집행기관을 통제와 감독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규모와 구조, 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형성기능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은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는 지방의회가 예산의 심의와 확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예산심의와 확정에 대한 의결권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세입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자체수입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야말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징수방법, 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사용료, 요금 등의 세외수입에 대한 지방의회

의 의결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된 것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와 확정에 대한 권한도 심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상세한 부분까지 규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삭감 내지 조정 위주의 소극적인 심의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와 확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제약들이 있는 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저해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 관련 법령들 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바람에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매년 1회 개최했던 정기회도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정례회로 갖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관계시행령이 정하여지지 않는 않지만 매년 정기회에 집중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들이 상·하반기로 분산되어 처리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열리는 제97회 마지막 정기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IMF 관리체제임을 감안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향상에 효율성이 큰 사업과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고도지식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과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문화관광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된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변자이라는 위치에서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심도있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년간 임시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위원회 활동, 구정질문, 의원세미나 및 현장확인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의 행정이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기간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시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의 이번 정기회 일정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금세기 마지막 회기인 제97회 정기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많은 성과와 종로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第97回 鐘路區議會 定期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6分 閉式)

○ 出席議員數 19人

○ 出席關係公務員

區 廳 長 鄭興鎮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吳炳漢
 財 務 局 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董連浩
 都市管理局長 李鍾禹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

